

##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의의와 원리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 I. 들어가며

교육현상 연구패러다임은 이론적, 실제적, 비판적, 변형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Goodson, 1992: 6). 각 패러다임을 문제의 원천과 탐구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론적 패러다임은 가설의 검증과 실험을, 실제적 패러다임은 실제 상황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비판적 패러다임은 비판적 분석과 이해를, 그리고 변형적 패러다임은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기초로 한다(Haggerson, 2000: 19). 이론적 패러다임은 눈으로 관찰가능한 사실을 증거로 차용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 한다. 이론적 패러다임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실험상황을 설정하고 설계한다. 실제적 패러다임은 사실의 세계를 가설설정, 증거수집, 가설검증 및 실험의 단선적 구조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신, 실제적 패러다임은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으로 동원하여 실제 전개되는 세계의 질적 성격을 이해하려 한다. 비판적 패러다임은 사회비판에 중점을 둔 비판이론에 이론적 정향을 강하게 정초하고 있다. 비판적 패러다임의 목적은 단순히 실제 상황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이해보다 사회인식을 비판적으로 버리는데 있다.

이에 비해, 변형적 패러다임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주안점을 둔다. 참여자의 참여는 연구자의 전지적 시점에서 실제적 상황을 기술하는 연구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감춰진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변형적 패러다임은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구술면담을 통해 수집하는 생애사연구를 연구방법으로 동원한다. 생애사연구는 하나의 총체로서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온전히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Atkinson, 1998: 8).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은 단편적 사실로 온전히 포착할 수 없다.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은 한 편의 이야기이다. 이런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 행위와 구조의 경계를 허물어, 삶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배경, 즉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탐색하는 생애사연구가 필요하다.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구술하고 그 맥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때, 생애사연구에서 삶의 이야기는 맥락(context)을 발견하는 창문의 구실을 한다. 생애사연구의 주안점은 평면적으로 삶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이야기의 맥락을 이루는 사회구조를 시간성의 차원에서 발견하는 데

있다.

이 글은 교육연구의 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생애사연구의 원리와 구체적 기법이 무엇인지 밝히려 한다. 우선, 생애사연구의 인식론적 기초를 질적 연구의 ‘재현의 위기’에 대한 응전, 교육연구의 참여적 전환, 연구참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것은 생애사연구가 교육현상을 질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되, 문화기술지로 통칭되는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차이나는 교육현상 인식의 방법론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둘째, 생애사연구의 세 가지 원리, 생애사연구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생애사연구의 초점이 삶의 이야기의 전경인 시간성이라는 점, 생애사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상세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셋째, 생애사연구에서 활용하는 구술면담의 기법을, 구술자료의 수집, 해석, 글쓰기, 타당도의 측면에서 기술 하겠다. 구술면담의 초점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과 신뢰에 기초하여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경청하는 데 있다. 이때,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교육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구술자료를 해석하며, 해석한 결과를 글로 쓰는 절차와 기법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변형적 패러다임의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의의와 원리, 그리고 구체적 연구기법을 밝히려 한다.

## II. 생애사연구의 인식론적 기초

### 1. 질적 연구방법에서 ‘재현의 위기’에 대한 응전으로 생애사연구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정, 개념, 명제의 결합물이다 (Creswell, 1998/2005: 102). 질적 연구에서 전략을 포함한 글쓰기의 전 과정이 방법(method)에 해당한다면, 이론적 패러다임은 방법론(methodology)이다. 이론적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실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제설정이다. 이런 문제설정은 질적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신념이기도 하다. 이론적 패러다임은 개념적 그물망에 의해 대문자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과정이기보다 질적 연구를 정당화하는 기제이다(Lather, 1989: 250).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론적 패러다임은 긍정적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이다.

시대별로 질적 연구를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살펴보면, 1980년대 초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분류는 양적 연구의 반경으로 질적 연구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Jacob(1987)은 질적 연구를 인간생태학, 생태학적 심리학, 홀리스틱 문화기술지, 인지적 인류학,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gdan과 Biklen(1982/1991)은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 문화기술지, 민속방법론으로 질적 연구를 구분하였다. 1990년대 이전 질적 연구에서 이론적 패러다임 분류의 초점은 양적 연구의 특징인 설명 및 예측과 질적 연구의 특징인 이해의 특징을 상호비교하는 데 있었다. Atkinson-

Delamont-Hammersley(1988)은 상징적 상호작용, 인류학, 사회언어학, 문화기술지, 민주적 평가방법, 맑스주의 문화기술지, 페미니즘으로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구분하였다. 세 사람의 분류의 특징은 이전까지 이론적 패러다임의 지평에 가시화되지 않았던 비판적 패러다임이 맑스주의 문화기술지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후,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대부분 현상학적 접근과 내러티브 연구 등에서 알 수 있는 개인의 생생한 경험, 비판적 문화기술지에서 나타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 상징적 상호작용과 심층면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소통을 준거로 분류되었다.

이런 추이에 따라 Denzin과 Lincoln은 일반적 수준에서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 해석학을 포함한 구성주의, 맑스주의와 해방적 접근 등 비판이론, 탈구조주의와 페미니즘으로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분류하였다(Denzin & Lincoln, 2003: 34-35).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준거로 연구의 과학성을 강조한다. 구성주의는 확실성, 있음직함, 전이성 등을 준거로 해석학적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지를 동원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비판이론은 해방이론을 준거로 성, 계급, 인종 등을 대상으로 사회구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탈구조주의와 페미니즘은 재현의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내적, 외적 타당도란 실증주의의 준거를 여성 등 소수자의 체험에 근거한 성찰로 대체하려 한다. 이런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분류는 실증주의 패러다임,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 비판적 패러다임, 구성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참여적 패러다임으로 정교화되었다(Denzin & Lincoln, 2005: 195-196).

참여적 패러다임(participatory paradigm)은 질적 연구가 겪은 ‘재현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질적 연구가 겪은 ‘재현의 위기’는 실증주의의 주장처럼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는 회의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참여적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인 실재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바라본다. 이런 측면에서 생애사연구는 참여적 패러다임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2. ‘참여적 전환’으로 생애사연구

‘참여적 전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참여적 전환’은 교육현상과 교육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의 경계를 허물려고 한다. 둘째, ‘참여적 전환’은 교육현상의 이해에서 참여자의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려 한다. 셋째, ‘참여적 전환’은 교육현상을 생성하는 참여자의 실천에 주목한다(Alexander, 2005: 414). ‘참여적 전환’은 질적 연구의 방향과 형식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적 전환’은 인식론적으로 ‘몸의 귀환’으로 상징되는 문화 개념의 변화에 추동되었다. 이것은 문화를 유동적, 능동적, 결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 개념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의미를 구성하는 그물망이기 때문이다(Eisenhart, 2001: 210-215). 유럽의 중세문화는 문자보다 목소리가 갖는 힘에 의존했다. 당시 가수는 궁정에서 다른 궁정으로 옮겨 다니며 시를 낭송하는 음유시인이었다. 텍스트는 음유시인의 낭송을 통해 의미화의 공간에 재현되었다. 음유시인은 입에서 귀로 전달하는 목소리에 의해 전혀 다른 모습의 시문화를 보여주었다. 음유시인의 공연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텍스트를 목소리로 소환한다.

여기서 텍스트의 의미는 연극배우, 가수, 시인, 화가, 작가 등의 실천에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환경 적응의 방식<sup>1)</sup>과 경제관계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sup>2)</sup>로서 문화의 의미는 배제된다. 이런 문화의 개념들은 문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을 간과한다. 전자는 문화를 환경 적응의 양식, 구조, 체계로 이해하고, 후자는 문화를 경제관계로 환원하여 재생산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이런 문화의 개념들은 문화의 구조적, 도구적 관점을 나타낼 뿐,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의 관점에서 문화의 근본적 성격을 규명하지 못한다. 반면, '몸의 귀환'으로 상징되는 문화의 개념은 문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에 초점을 둔다. 앞선 두 개념이 거시적 수준에서 문화를 체계로 바라본다면, '몸의 귀환'으로 상징되는 문화의 개념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이 어떤 맥락에서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을 수행하는지 관심을 갖는다(Bruner, 1996: 11-12; Caughey, 2006: 8).

'몸의 귀환'으로 상징되는 문화 개념은 개인이 겪은 경험의 문화적 측면을 탐색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개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다(Ellis & Bochner, 2003: 209). 그래서 인류학자 Turner(1986)는 개인을 '호모퍼포먼스(Homo Performans)'로 정의하였다. 사람은 문화를 생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성, 인종, 국민 등은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문화의 산물이다. 교육현상도 일종의 문화적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교육현상은 교육현상을 생성하는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참여자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에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적 전환'은 교육현상이 생성하는 맥락으로 질적 연구에서 무게중심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는 지금까지 하찮게 취급되었던 참여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생애사연구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현상을 탐구한다(Goodson, 1992: 10). 생애사연구는 참여자와 구술면담에 의해 삶의 이야기를 탐색한다. 생애사연구가 연구참여자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에서 재현하려는 것은 교육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이다. 교육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은 사실적으로 재현되지 않고, 참여자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에 의해 재현된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는 생애사연구의 연구자와 참여자가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구술면담의 맥락에서 기술되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구술면담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생성, 해석, 변형된다. 생애사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구술면담을 통해 교육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연구의 초점으로 설정한다.

### 3.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생애사연구

- 1) 가장 오래된 문화의 개념은 문화를 환경에 적응의 방식으로 정의한다. 원래 문화는 동물과 농작물의 재배를 지시하는 cultivation에 어원을 두고 있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은 학습을 통한 심성의 함양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것은 토지의 활용과 농작물의 재배라는 개념의 비유적 확장의 결과였다. Williams는 이런 문화의 개념에 cultivation이란 문화의 어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화는 인류가 집단적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었다(Smith, 2002/2008: 16-17).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문화 개념은 문화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 2) 문화의 또 다른 개념은 맑스주의 재생산이론에 터해 문화를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맑스주의의 기본 뼈대는 '상부구조와 토대'의 환유이다. 문화, 정치, 학문 등 상부구조는 상부구조를 버티는 토대의 구실을 하는 경제관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상부구조의 일부인 문화는 경제관계의 지형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는 경제관계로 환원되기 때문에 문화는 경제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문화는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도구이다. 이 문화의 개념에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는 실천의 차원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문화는 구조적인 맥락에서만 이해된다.

실증주의나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한 장르인 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정향을 특권화하여,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앎의 소통과정을 파편화한다. 문화인류학자 Rosaldo(1989)는 이것을 ‘눈의 문화기술지(the eye of ethnography)’가 연구자 ‘1인칭 나의 제국주의(the I of imperialism)’와 연결된 결과라고 보았다. ‘눈의 응시’의 은유는 눈의 시각적 감각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전지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특정한 질서를 발견하거나 부여하는 관찰자의 시선을 가정한다. 관찰자는 자기 주변의 세계를 합리성의 미명하에 객관화하려 한다(Assmann, 1998/2011: 127). 수학적 공리체계가 정립되면서 확산되었다. ‘눈의 응시’의 은유는 세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신의 전지적 시선을 통해 세계의 합리적 지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이 눈은 항구적이며 하나의 시점으로 환원하는 시각적 포착을 산출하는 응시의 눈이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는 청각에 의존한 구술문화에서 시각에 의존한 문자문화의 우월성을 가정하는 근대성 담론이 관통하고 있다. 목소리는 한번 발화하면 흘러지나가는 시간 속의 사건이다. 텍스트 위주의 문자문화는 인쇄술의 발명 및 보급과 글쓰기문화의 발달에 따라 목소리 위주의 구술문화를 배척해 나갔다. McLuhan은 시각, 청각, 후각 등 몸의 기관을 은유로 활용하여 미디어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근대 이후 청각 위주의 미디어에서 시각 위주의 미디어로 중심이동은 청각 위주의 구술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직접적 소통 외 근대의 구술문화는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자 미디어라는 이차적 청각 위주의 미디어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런 청각 위주의 미디어는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배제하고 존재할 수도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다고 간주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는 시각 기관 위주의 ‘눈의 응시(gaze of the eye)’의 은유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에서 ‘눈의 응시’의 은유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불균등한 상호작용에 의한 거리를 가리킨다(Roman & Apple, 1990: 48-49). ‘눈의 응시’의 은유는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응시의 공간을 한가운데에 배치하는 Bentham의 원형감옥(panopticon) 구상<sup>3)</sup>처럼 연구자는 참여자와 거리를 두면서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려 한다. ‘눈의 응시’의 은유가 지배적인 원형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는 보이긴 해도 볼 수는 없다. 즉, 수감자는 앎의 대상이 되긴 해도, 소통의 주체는 되지 못한다. 원형감옥의 중앙부와 마주하도록 수감자의 방을 배치함으로써 수감자에게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감시자는 비가시성의 영역에서 수감자를 눈으로 응시하여 정보를 획득하려 한다(Foucault, 1975/2003: 309-313). 통상적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에게 참여자는 보임의 대상이지 대화에 의한 소통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항상 비가시성의 영역에 배치되어 자신을 가시성의

3) 원형감옥의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 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 중앙에서 파악할 수 있다. 원형감옥의 원리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수월하게 수감자를 포착할 수 있다.

구도에 올려놓는 봄의 주체이다.

이에 비해, 생애사연구는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눈의 응시’의 은유를 벗어나, 타자, 즉 연구참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화에 의한 소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Bertaux는 생애사연구에서 면담할 때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를 중요한 방법론적 쟁점으로 보았다(Measor & Sikes, 1992: 215).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상황에서 화자, 즉 참여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의 이야기의 표면을 가로질러 청자와 화자의 주관적 의미교섭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이야기 듣기를 넘어서는 듣기’이다(Measor & Sikes, 1992: 214).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애사를 읽을 때, 타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 생각, 느낌 등에 공감할 수 있다(Langness & Frank, 1991: 88). 생애사연구는 질적 연구가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얻는 즉시 떠나는 ‘강탈모형(rape model)’이 아니라, 존중을 지향하는 균등한 상호작용을 바라는 ‘연인모형(lover model)’을 전제로 한다(Lincoln & Guba, 1989/2003: 227-228).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

Cole과 Knowles(2005)는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상호작용을 관계성, 상호성, 배려와 존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관계성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설계의 경험, 윤리, 인간적 차원에서 중심이다.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친밀하고 진솔한 관계는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기제이다(Cole & Knowles, 2001: 27; Measor & Sikes, 1992: 210). 전기작가와 대상의 개인적 친분은 자주 삶의 이야기를 쓰는 것에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가령, 르네상스 중반에 Roper는 More의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질을 More의 집에서 More의 양자로서 14년 이상 살았던 경험에서 찾았다(Parke, 1996: 4). 통상적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경계는 명확하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단선적 관계에서 참여자는 수동적 역할로 한정된다. 반면,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감은 관계 속의 대화의 일부로서 통상적인 질적 연구와 다르게 이해된다. 참여자는 삶이 생성되는 면담의 맥락에서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Cole & Knowles, 2001: 28).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의 상호성은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낳는다. 배려와 존중은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의 상호성을 지탱하는 질적 특성이다(Cole & Knowles, 2001: 44).

### Ⅲ. 생애사연구의 세 가지 원리

#### 1. 생애사는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삶의 이야기

생애사연구는 문화, 정치, 가족, 교육, 종교 영역과 같은 맥락의 영향 속에 자리 잡은 삶을 연구한다. 그래서 Bertaux는 생애사를 ‘사회학적으로 읽은 전기’라고 불렀다(Measor & Sikes, 1992: 210). 이런 생애사연구와 삶의 이야기 연구의 다른 점은 생애사와 삶의 이야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삶의 이야기 연구가 개인 경험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생애사연구는 개인의 경험에서 보다 넓은 맥락적 의미를 끌어낸다(이희영, 2005: 144; Cole & Knowles, 2001: 20). 역으로 생애사연구는 개인

의 경험을 이런 경험이 자리 잡은 맥락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것은 생애사연구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생애사연구의 성격은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사회적 조건, 즉 맥락의 관계로 확장된다. 생애사연구에서 구술면담의 맥락이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 연구대상인 교육현상으로서 사회적 조건, 즉 맥락은 삶의 이야기와 사회적 조건의 관계에 기초한다.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이해하려 한다. 왜냐하면, 생애사연구는 개인을 보다 넓은 사회적 조건, 즉 맥락을 발견하는 창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Cole & Knowles, 2001: 12). 이런 생애사연구의 특징은 초기부터 가장 큰 생애사연구의 특징이었다. Dollard(1935)는 생애사연구가 개인의 삶과 특징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Dollard는 생애사연구를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문화연구라고 정의하였다(Dollard, 1935: 278). 이처럼 생애사연구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시카고대학의 사회학부는 생애사연구의 산실로서, 생애사연구를 사회학의 방법으로 채택하여 많은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때, 개인에 대한 사회적 조건의 영향 연구는 Dollard뿐만 아니라 시카고대학 사회학부의 생애사연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징이었다. 생애사연구는 시카고대학의 사회학부에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조건을 탐색하는 사회학의 방법이었다. 시카고대학의 사회학부가 처음으로 생애사연구를 사회학적으로 활용한 것은 Wisznienski가 쓴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온 폴란드인에 관한 300쪽 분량의 삶의 이야기였다. Thomas와 Zaniecki는 Wisznienski의 연구에 기초해서, 1920~30년대에 유럽과 미국의 폴란드 농민을 연구하였다(Miller, 2000: 4). 그러나 생애사연구는 1930년대를 지나면서 통계학을 활용한 양적 연구와 통상적인 질적 연구로 대체되어 갔다.

생애사연구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사회학적 관심을 내재적 정향으로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애사(life history)와 삶의 이야기(life story)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삶의 이야기는 개인에 의해 말해진 삶, 혹은 삶의 단편이다. 반면, 생애사는 사회적 조건, 즉 맥락 내에 위치한 삶의 이야기이다(Goodson, 1992: 6). 삶의 이야기는 하나의 총체로서 삶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내러티브하게 서술한 산물이다. 그래서 삶의 이야기는 생애사와 달리 포괄하는 범위가 더욱 넓다. 먼저, 삶의 이야기는 감정을 포함한 경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정체성 발달에 기여한다. 삶의 이야기는 삶의 사회적 측면에서 피면담자를 둘러싼 규범 및 질서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공동체 감각을 고양하는 접착제의 구실을 한다. 삶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삶의 이야기는 삶의 영성적 측면에서 신비감을 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놀라움, 존중 등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이야기는 세계에서 역할과 세계 이해의 도구로서 가치에 대해 알려준다(Atkinson, 1995: 7-14). 삶의 이야기가 포괄하는 네 가지 측면은 각각 자신, 타자, 삶의 신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응한다.

물론, 삶의 이야기 연구와 생애사연구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삶의 이야기 연구와 생애사 연구는 모두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적 특징을 연구하고, 개인 경험의 개별성과 복잡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생애사연구가 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술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과 상호교차한다. 구술문화는 텍스트로 쓰는 문자와 달리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소리로 발화된

말은 항상 발화되는 맥락에 의존적이다(Ong, 1982/2006: 107). 이런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생애사연구는 삶의 이야기 연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애사연구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 생애사연구는 개인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사회적 조건이란 보다 넓은 맥락에 위치지어 해석한다(Goodson, 1988: 84).

삶의 이야기가 삶의 경험을 해석한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생애사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다(Goodson & Sikes, 2001: 17). 생애사연구는 삶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자리 잡은 맥락에서 해석한다. 삶의 경험이 생애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깃들여 있는 해석<sup>4)</sup>의 두 층위는 ‘하나의 삶의 이야기’보다 ‘여럿이 함께 공존하는 이야기들’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나의 진리의 이야기’로 상징되는 연대기로 삶의 경험을 이야기로 구조화하는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생애사가 연구하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삶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삶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삶의 이야기의 또 다른 대리보충물이다(Derrida, 1967/2004: 505-508). 그래서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넘쳐난다. 이것은 삶의 이야기로 재현의 대리보충적 성질, 즉 삶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결여로부터 발생한다. 삶의 이야기로 재현하기 전에 삶의 경험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애사연구는 새로운 삶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sup>5)</sup>이다. 삶의 이야기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삶의 경험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약속이다(Jackson, 1995: 20). 오히려 삶의 이야기는 삶의 경험의 사실적 재현과 거리를 뒀으로써 경험을 조금 더 낮게 복원할 수 있다.

## 2. 생애사연구의 초점은 삶의 이야기의 전경인 시간성

생애사연구는 시간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시간은 생애사연구의 성격을 이해하는 범주이다. 우선, 생애사연구는 일회성 면담으로 그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면담으로 즉 진행된다. 이것은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의 대화적 성격에 기인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연구가 끝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인 실재에 대한 삶을 얻게 된다(Miller, 2000: 81). 그리고 생애사연구는 일차적으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간의 교섭에 기초하고 있다.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의 삶은 시간 내에 자리 잡은 삶이다(Goodson & Sikes, 2001: 46). 생애사연구는 현재부터 과거까지 즉 시간에 걸쳐져 있는 사회적 조건 변

4) 설명과 해석은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화 실천의 양식이다. 설명과 해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Bruner, 1996: 101). 해석은 불완전하고 상호경합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특정한 맥락에서 의미를 조직화한 결과이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해석은 다른 해석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내러티브의 해석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상호공존, 경합하는 의미의 공간을 한가롭게 거니는 산책, 혹은 여행과 비슷하다. 내러티브의 해석은 과학적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진리’의 엄격한 검증의 관점에서 기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내러티브의 해석에서 중요한 관건은 ‘진리’의 이름하에 엄격한 검증의 잣대가 아니라, ‘그럴듯함’, ‘진리로 보여짐’, ‘실제적 쓸모 있음’ 등이다. 어떤 내러티브는 보다 사실에 근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수사적으로 보다 나은 이해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된다. 분명히 보다 나은 사고, 주장, 엄격한 기록이 드물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경합하는 내러티브의 해석 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5) 생애사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가 아무리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허구적 글쓰기와 경계는 불투명하다(Ellis & Bochner, 2003: 219-221). 허구의 라틴어 어원인 ‘fictio’의 의미는 ‘거짓’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구성하다’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허구적 쓰기 장치를 갖고 있다.



화의 영향, 사건이 개인에 끼친 영향, 그리고 참여자의 삶의 과정을 관통하는 사회적 조건의 생성, 성숙, 소멸의 운동을 연구한다(Miller, 2000: 74). 이런 측면에서 생애사연구는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현재의 지평과 과거의 지평 간의 교섭이란 시간의 축에서 조명한다.

문화기술지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시간을 배제한 채 공간의 측면에서 민속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민속학적 방법은 상황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을 소홀히 여긴다. 이로 인해 개인은 상호교환될 수 있는 범주로 간주되어, 개인의 독특성이 무시되는 질적 연구의 역설적 상황을 초래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질적 연구가 시간의 축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통상적 질적 연구는 통계적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가 되는 실증주의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Goodson, 1988: 81-82). 반면, 생애사연구는 시간의 축을 전면에 내세워 연구대상인 교육현상을 이해하려 한다. 시간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 생애사연구도 다양한 종류(6)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쟁점이 생애사연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생애사연구의 밑바탕에 자리 잡은 시간의 개념에 논의를 한정하겠다. 시간의 개념은 크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아이온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이온의 시간은 개인을 특정한 형식에 붙들어 매고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나누는 유동적인 선분의 시간이다(Deleuze, 1969/2007: 279-281).

생애사연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초한다면,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일직선상의 연대기로 파악한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초한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탐색한다. 이런 생애사연구의 주안점은 참여자가 살아온 삶과 삶이 자리 잡은 맥락의 사실성 탐구에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과거는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현재로서 사실성(reality)만을 가질 뿐이다. 연대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다. 이런 시간의 연속성은 생애사연구에서 삶의 이야기를 쓸 때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플롯(plot)의 기승전결로 기승전로 나타난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초한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구성하는 과거의 사실성을 발견하려 한다.

이런 생애사연구에서 삶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초한 생애사연구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하나의 삶의 이야기만 수용한다. 그런데 생애사연구에서 과거는 역사적 현재로서 사실성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 즉 상황과 관점에 따라 매번 새롭게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생애사연구는 참여자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대기로 잇는 일직선상에서 파악하지 않는다. 생애사연구의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의 삶은 재구성된다(Freeman, 2007: 134-138; Munro, 1998: 6). 생애사연구는 과거를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의 형태에서 현재로 불러들인다. 여기서 과거는 더 이상 연대기의 일직선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 아니다.

6) Miller(2000)는 생애사연구를 인식론적으로 사실주의 생애사연구, 신실증주의 생애사연구, 내러티브 생애사연구로 구분하였다. 사실주의 생애사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사실성에 주목한다. 면담에서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사실을 귀납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신실증주의 생애사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사실을 이론 검증의 도구로 간주한다. 그래서 신실증주의 생애사연구의 기본적 성격은 연역적이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생애사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실이 구성된다고 가정한다(Miller, 2000: 12). 이렇게 생애사연구는 여러 관점 및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과거는 구술면담에서 참여자가 화자로서 삶의 이야기를 말할 때, 현재의 지평과 교섭하여 의미가 이해되는 지평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생애사연구는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나누는 유동적 선을 강조하는 아이온의 시간에 기초하고 있다. 생애사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아이온의 시간은 과거의 불확정성을 가정한다. 왜냐하면, 아이온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과거가 역사적 현재의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생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Deleuze, 1969/2007: 282-283). 아이온의 시간에서 과거는 과거에 존재하던 역사적 현재로서 사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 생애사연구에서 과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니라, 구술면담의 상황과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계, 그리고 참여자의 관점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생애사연구에서 과거는 확정적이지 않고 현재의 지평과 관련하여 사건성을 갖는다.

생애사연구에서 시간은 참여자가 말하는 삶의 이야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Goodson & Sikes, 2001: 46). 삶의 경험은 시간, 공간,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 차원에서 삶의 이야기로 구조화된다. 삶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상황이란 특이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명한다. 시간, 공간, 그리고 상호작용은 삶의 경험이 이야기로 재현될 때 해석의 범주로 활용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50; Harnett, 2010: 164). 삶의 이야기의 세 차원 중 시간은 삶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심축의 구실을 한다. 시간은 삶의 이야기의 플롯으로 녹아들어간다. 삶의 이야기는 마치 연대기처럼 삶의 경험을 기승전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나의 총체로 재현하는 상상블이다(Mink, 2001: 218). 삶의 이야기의 플롯 구성은 삶의 경험들을 관련지어 의미의 그물망을 짜는 행위이다. 삶의 이야기의 플롯은 삶의 경험들을 일정하게 결합하여 일관성, 전체성, 종결성 등을 부여한다(Bruner, 1986: 19). 삶의 이야기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건을 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플롯이란 뼈대를 갖고 있다.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객관적 해설자가 아니라,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이런 경험을 삶의 이야기로 구조화하여 의미를 탐색하는 내러티브 필터가 되어야 한다(Zeller, 1995: 224).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항상 다양한 의미가 공존한다. 생애사연구는 이런 의미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 생애사연구는 이런 의미들을 일정한 구도하에 배열, 배치한다는 점에서 선택적이다. 이것은 생애사연구에서 구술면담의 맥락에서 연구참여자가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명확해진다.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의 기억은 선택되는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모종의 무엇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때때로 창조하는 행위이다(Langness & Frank, 1991: 109).

### 3. 생애사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에 의존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연구기법인 구술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얇이 생성되는 맥락을 제공한다(Miller, 2000: 101-102).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면담은 연구참여자를 반응자(respondent)로 취급하는 일련의 질문을 한다. 이때, 연구자는 참여자를 질적 연구의 맥락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자료로 간주한다.

이런 측면에서 면담은 양적 연구의 조사 기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반면,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를 단순히 자료를 얻는 반응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균등한 관계를 맺는다. 참여자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의 역사를 생성하는 주체이다(Casey, 1992: 188-189). 생애사연구와 통상적인 질적 연구는 구성된 실재와 고정된 실재,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균등한 상호작용과 불균등한 상호작용을 갖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애사연구는 교육현상이 얹어 생성되는 면담의 맥락에서 구성된다고 여긴다. 실재에 관한 철학적 관점에 따라 교육현상은 객관적 현상, 지각된 현상, 구성된 현상, 만들어진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Lincoln & Guba, 1985: 81-85). 만들어진 현상은 실재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어서, 현상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재의 다양한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두는 구성된 현상과 다르다.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교육현상의 객관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교육현상에 대한 얹어 면담의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현상의 의미는 다양하다.

둘째, 생애사연구는 얹어 생성되는 면담의 맥락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정향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생애사연구는 면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의 정향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다(Miller, 2000: 101). 왜냐하면, 연구자와 참여자의 불균등한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감환하기 때문이다(Tyler, 1986: 128).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의 협력 없이는 연구대상인 교육현상의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단순한 자료수집의 기법이 아니다.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참여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대화적 성격을 갖는다.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질적 연구의 통상적인 면담과 궤를 달리한다. 생애사연구에서 면담은 낯선 개인과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의 개인과 대화하듯이 해야 한다(Cole & Knowles, 2001: 72). 이런 측면에서 생애사연구는 ‘개인에 관한 연구는 본래적으로 대화적이다’는 가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다(Lincoln & Guba, 1985: 104).

이런 생애사연구의 관계성은 통상적인 질적 연구와 구분되는 이론적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생애사연구의 관계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특징은 연구대상인 실재의 특성을 다루는 존재론적 가정, 두 번째 특징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를 다루는 인식론적 가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sup>7)</sup>. 반면, 통상적인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불균등한 상호작용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거리를 분리하여, 경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교섭을 방해한다. 이 결과가 얹어 객관주의이다. 객관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주관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Lakoff & Johnson, 1995: 247; Ong, 1982/2006: 74). 연구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상호작용은 교육현상을 면담의 상황과 경험의 맥락에 따라 선정,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로 취급한다.

7) Creswell은 질적 연구의 전략을 전기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연구전략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연구대상인 실재의 특성을 다루는 존재론적 가정,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를 다루는 인식론적 가정, 연구자의 주관과 관련된 가치론적 가정, 글쓰기와 관련된 수사학적 가정, 연구방법을 다룬 방법론적 가정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Creswell, 1998/2005: 103-105). Creswell은 질적 연구의 다섯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가정들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의 다섯 전략이 무슨 이론적 패러다임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여 주려 하였다.

#### IV. 생애사연구에서 구술면담의 절차와 기법

##### 1. 생애사연구에서 구술자료의 수집 절차와 기법

생애사연구는 개인의 삶에 관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 생애사연구는 구술면담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구술면담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며, 그리고 글쓰기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구성된다(Atkinson, 1998: 3). 생애사연구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할 때 생애사연구의 총체적 관점이 암묵적으로 가정된다. 생애사연구의 총체적 관점은 자료가 시간에 걸쳐 배열된다는 점과 사회구조와 사회적 행위자로서 개인 간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Miller, 2000: 74-75). 우선, 삶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참여자는 현재에 머물고 있으나, 구술하는 삶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억이다. 생애사는 현재까지 살아온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 기술의 결과이다. 따라서 생애사연구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에 걸친 변화의 효과나 삶의 과정에 따른 운동을 자료로 수집해야 한다. 또한, 생애사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사회적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생애사연구의 초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맥락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

생애사연구의 총체적 관점이 생애사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지탱하는 기초라면, 구술면담은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구술면담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구술면담은 대화보다 더욱 상세한 질문들로 짜여 있다. 구술면담은 보다 깊이 있고 명확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Atkinson, 1995: 122). 참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구술자료는 일회성 이상이고 다년 간에 걸쳐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참여자와 계속적인 면담에서 수집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참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생애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온다. 생애사연구에서 온전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거나 상세한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Miller, 2000: 83). 또한,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와 맺는 계약의 특징은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참여자가 구술면담한 결과를 기술한 전사록과 해석한 텍스트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생애사연구 윤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와 연구자의 균등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연구참여자가 전사록과 텍스트를 읽고,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참여를 요구한다.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의 참여는 참여자가 구술면담한 결과를 기술한 전사록을 읽을 기회를 갖고 구술면담 전사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국면, 전사록을 해석할 때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면, 그리고 연구결과를 담은 텍스트를 읽고 수정하는 국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구술면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연구자는 구술면담에서 참여자를 존중해야 한다. 연구자는 구술면담한 어디에 활용할지 참여자에게 진솔하게 말하고, 오디오 레코더 이용을 허락받아야 한다. 오디오레코더의 존재는 참여자가 자신이 살

아은 삶의 이야기를 말하기 어려워하게 할 수 있다. 참여자는 민감한 쟁점과 주제에 대해 말할 때, 오디오 레코더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만약, 참여자가 오디오레코더 끄기를 바란다면 연구자는 그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구술면담에서 참여자가 오디오레코더를 의식하지 않도록 오디오레코더 이용을 허락받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생애사연구에서 구술면담할 때 일상어로 질문하고 복잡한 용어 선택은 자제해야 하고, 의도가 모호하거나 중의적 의미를 갖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구술면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일상적 상황을 가정한다. 이런 일상적 상황에서 연구자는 문어체를 지양하고 구어체로 쉽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참여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연구자의 독특한 용어, 이론적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술면담의 일상적 대화 상황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공감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구술하는 장이다. 이런 공간에서 연구자만의 독특한 용어나 이론적 용어는 참여자의 진솔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료를 구술면담에서 수집할 때 복잡한 용어, 독특한 용어, 이론적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연구자의 관점을 투영하는 용어의 사용은 참여자의 대답을 일정한 방향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관점을 투영하는 용어는 참여자의 대답을 연구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술면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제약한다. 구술면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의 구조화는 참여자의 대답을 일정한 방향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참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구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한다. 그러므로 구술면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의 구조화 수준은 가급적 낮을수록 좋다. 물론, 이것이 구술면담의 일상적 대화 상황이 마치 잡담처럼 아무런 내용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구술면담의 구조화 수준은 구술면담 상황의 자연스러운 정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넷째, 연구자는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의 대답이 길더라도 다 들을 때까지 경청해야 한다. 구술면담은 형식적 측면에서 대화로 간주될 수 있으나, 결코 대화가 아니다. 구술면담의 초점은 참여자의 감추어진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구술을 경청하며, 연구자의 질문은 격려의 차원에서 구술면담의 배경을 이룬다. 연구참여자에게 구술면담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구술면담의 질은 한층 더 나아질 것이다. 구술면담의 대화적 상황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대답을 경청하기 위한 기회이지,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이 아니다. 구술면담의 대화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구술이야기를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장이다. 연구자의 경청하는 자세는 구술면담에서 연구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한다. 연구자는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의 이야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면서 진지하게 연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참여자는 생애사연구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된다.

다섯째, 구술면담의 가장 좋은 기법은 참여자가 말하고 보여주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에게 편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참여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말하는 주제나 경험에 공감하고 어느 누

구보다도 연구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참여자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안내자여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말할 주제와 경험에 대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감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감성은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신뢰에 기초한다.

## 2. 생애사연구에서 구술자료의 해석 절차와 기법

생애사연구에서 수집한 구술자료의 이해는 자료수집의 비구조적 성격과 밀접히 연동한다. 구조적 구술면담은 궁극적으로 초점이 명확한 질문들로 구성된다. 이런 질문들은 구술면담의 초점을 항상 참여자의 삶에 둔다. 참여자는 구술면담에 의해 자료를 담지한 모종의 무엇으로 간주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는 양적 연구의 조사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구술면담은 단순히 자료의 가치중립적 전달이 아니라, 자료의 해석을 통해 얹어 생성되는 장이다. 참여자는 이것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구술면담의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구술면담에서 참여자의 참여는 최소 수준에서 최대 수준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생애사연구에서 구술면담은 참여자의 활발한 참여를 이상적 모습으로 가정한다.

연구자는 구술면담에서 이야기된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생애사연구에서 구술자료 해석의 문체와 직면하게 된다. 우선, 참여자는 자신이 들려준 삶의 이야기의 최초의 해석자이다. 참여자는 살아온 삶의 실재를 순수한 형태로 결코 들려주지 않는다. 참여자는 살아온 삶의 실재를 자신의 언어적 세계로 구성한다(Atkinson, 1998: 5). 어떤 본질을 지니지 않는 것이 바로 삶의 이야기의 기묘한 점이다.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발생한 과거의 시점과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재구성은 유한성의 울타리 내에서의 무한한 대체작용들이다. 역사학자 White(1978)의 말대로 과거는 상상적 허구와 다를 바가 없다. 과거의 흔적을 재구성한 삶의 이야기는 삶의 경험을 해석하는 참여자와 연구자 협동의 산물이다(Harnett, 2010: 162). 이로 인해 의미들의 다양체를 발생하게 하는 해석의 가능성이 허용된다. 의미를 생성하는 구술자료 해석의 운동은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대체하며 삭제한다. 넘쳐나는 의미는 생애사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사실성 결여에서, 즉 필연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는 실재의 결여로부터 생겨난다.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다양한 해석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애사연구는 구술면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 교섭을 강조하기 때문이다(Miller, 2000: 130). 구술자료의 해석은 분석과 연구의 층위를 달리한다. 자료의 수집의 양이 풍부하고 질이 깊을수록 의미 탐색의 과정은 탄력을 받는다. 자료의 수집이 자료의 사실적 측면과 연관있다면, 분석과 해석은 자료의 이차적 변환과정의 두 축이다. 분석은 실재에 대해 관찰, 측정, 타자와 소통하는 소위 표준적 절차에 의존한다. 반면, 해석은 표준적 절차에 의존하는 분석과 달리 인문학적 측면에 기반한다. 인간의 간주관성, 직관, 감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해석은 의미를 이해하는 인간의 활동에 내재하는 근본적 차원이다(Wolcott, 2001: 31-33). 실증주의의 인과론적 설명방식은 삶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 외적

인 법칙의 발견을 원인과 결과의 범주에 따라 추구한다. 이것은 '진리'의 이름으로 지식의 확실한 토대의 구축에 초점을 둔다. 반면, 삶의 이야기는 인과론적 설명방식 대신 해석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Bruner, 1986: 37).

첫째, 구술자료 해석에서 범주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추상적 범주는 살아 있는 경험에 복합성에서 동떨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연구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생생한 날 것'으로 연구자료와 추상적 범주 간의 긴장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추상적 범주는 참여자가 실제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간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범주의 활용은 타자의 삶과 비교하고, 보다 특수한 무엇을 조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패턴을 탐색하고 이론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Merrill & West, 2009: 130). 해석은 자료를 이해하는 특정한 관점과 가치를 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석은 특정한 관점과 가치를 내재한 추상적 범주를 활용해 '생생한 날 것'으로 구술자료의 의미를 탐색한다. 추상적 범주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 차용할 수 있고, 근거이론에 의하면 자료의 양적 포화와 코딩에 의해 발견될 수도 있다. 전자가 실증주의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료 해석의 범주를 선형적으로 결정한다면, 후자는 근거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주가 자료 해석의 과정에서 출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사이에 추상적 범주가 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Samuel, 2009: 12-13). 추상적 범주는 선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술자료 해석의 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둘째, 구술자료 해석에서 총체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을 하나의 총체로 간주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는 구술자료 해석에서 구술자료들을 서로 꿰뚫어 서로 연관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구술자료가 담고 있는 참여자의 삶이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야기의 플롯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의 플롯처럼 나름대로 처음과 끝이 있고 절정을 갖고 있다. 여러 구술자료들을 서로 분리한다면 개인이 살아온 삶을 조각내어 그 단편만을 알 수 있을 뿐, 하나로서 삶의 경험을 온전히 이야기로 담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구술자료들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연구자는 구술자료를 개인이 겪은 삶의 경험의 부분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구술자료의 전사록 작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오디오테입으로 녹음한 구술자료를 찬찬히 들으면서 서로 연관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라벨과 숫자를 붙여야 한다.

셋째, 구술자료 해석에서 연구자의 자기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술자료 해석은 경험적 수준, 자료해석 수준, 그리고 비평과 성찰의 수준이 상호중첩되어 있는 중층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Pillay, 2009: 49). 구술자료 해석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사록을 작성하는 경험적 수준에서 시작한다. 연구자의 이론적 정향 및 관점은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작동한다. 연구자는 아무런 의도 없이 연구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는 뚜렷한 연구목적과 의도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지, 수집하는 자료의 무슨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자료수집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특정한 이론적 레퍼토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단순히 추상적 범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료를 해석하지 않는다. 구술자료 해석에서 중요한 관건은 연구자의 자기성찰이다. 이것은 경험적 수준과 자료해석 수준보다 상위의 비평과 성찰의 수준에서 작동한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해석의 방법과 과정이 적절한지, 해석결과가 자신의 연구의도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 등 연구윤리적 쟁점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비평을 수행한다. 이렇게 구술자료 해석에서 연구자의 자기비평과 성찰은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다.

### 3. 생애사연구의 ‘참여적 타당도’

통상적인 질적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을 ‘삼각검증(triangulation)’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삼각검증’ 개념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연구자료, 방법, 연구참여자, 이론의 상호교차적 비교를 통한 검증 방법이다. ‘삼각검증’은 이런 상호교차적 비교를 통해 질적 연구의 진리값(trustworthiness)을 얻으려 한다(Lincoln & Guba, 1985: 305-307). 생애사연구의 관계성은 고정된 실재보다 다중적으로 구성된 실재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은 ‘삼각검증’에서 진리값이 가능하다는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가정과 서로 배치된다. 생애사연구에서 ‘삼각검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란 관점도 성립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삼각검증’은 통상적인 질적 연구가 단일한 의미를 낳는 고정된 실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증주의를 인식론적 공통분모로 하는 양적 연구에도 ‘삼각검증’은 연구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Campbell과 Fisk(1959)는 실험연구에서 방법의 ‘삼각검증’을 주장했고, Webb-Campbell-Schwartz-Sechrest(1966)는 하나의 방법의 편향이 다른 방법에 의해 제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삼각검증’ 개념의 대안으로 ‘크리스탈화(Crystallization)’, ‘구성적 타당도(Constructive Validity)’, ‘카타르시스적 타당도(Catharsis Validity)’<sup>9)</sup>, ‘맥락적 타당도(Contextual Validity)’, ‘대화적 타당도(Dialogic Validity)’ 등 다양한 개념이 모색되었다. 여기서 ‘크리스탈화’와 ‘맥락적 타당도’ 개념은 질적 연구가 후기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나타낸다. ‘크리스탈화’는 무한히 다양한 형태, 내용, 차원, 각도에서 시선의 조합을 강조한다. 크리스탈은 다른 색깔, 패턴, 구조를 창조하는 다른 방향에서 작동하는 프리즘이다. ‘크리스탈화’는 두 꼭지점의 밑변을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세 번째 꼭지점을 정한 뒤 삼각형을 완성하는 기하학의 은유에서 빛이 파동이자 입자고 실재를 정의하는 다양한 시선에 기초한 광학이론으로 중심이동을 함축한다(Richardson, 2003: 517-518). ‘크리스탈화’는 대문자 ‘진리’가 아닌 다중적 의미를 구성하는 실재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크리스탈화’가 생애사연구의 연구대상인

8) Silverman(1993)은 구성주의에 기반해 삼각검증을 활용하려 하였다. Cain & Finch(1981)는 방법의 다중성이 쟁점의 다른 측면을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Silverman은 두 사람의 입장과 유사하게 하나의 설명보다 설명할 상황을 이해하는데 삼각검증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Flick(1992)은 이런 입장을 ‘유연한 구성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유연한 구성주의’는 삼각검증을 실증주의의 타당도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구결과와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타당화하는 전략으로 전략시킨다(Seale, 1999/2003: 80).

9) 구성적 타당도는 이론이 경험과 자료의 논리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경험이 이론 구성의 기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하에 구성적 타당도는 특정한 경험과 자료가 얼마나 이론의 변화와 구성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로 타당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다. 카타르시스 타당도는 연구과정이 참여자의 가치를 재정형시키고 초점을 이동시키며 활기를 불어넣는 수준에 따라 타당도를 측정한다. 카타르시스 타당도는 참여를 통한 참여자의 자기 이해와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Freire의 의식화를 연상시키는 카타르시스 타당도는 연구자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의 가정을 비판한다(Lather, 1986/2003: 191).



실재의 의미가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가리킨다면, ‘맥락적 타당도’는 생애사연구에서 다중적으로 의미가 구성되는 실재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Saukko, 2005: 344).

‘크리스탈화’와 ‘맥락적 타당도’가 질적 연구의 흐름이 구성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면, ‘참여적 타당도(Participatory Validity)’는 생애사연구에 적합한 타당도 개념이다. ‘참여적 타당도’는 생애사연구의 참여적 성격을 반영한다. 생애사연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질적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참여자는 ‘강탈모형’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연구자와 더불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생애사연구의 또 다른 주체이다. 둘째, 참여자는 연구자의 관계에서 균등한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술면담의 ‘면담’이란 용어는 통상적인 질적 연구에서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불균등한 관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의 면담에서 피면담자는 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자에 취급되기 쉽고, 연구 방향은 피면담자에서 면담자로 진행된다. 반면,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관계는 참여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참여적 타당도’ 개념과 적합하다. 연구자와 더불어 참여자의 생애사연구의 적극적인 참여는 연구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참여자가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애사연구의 또 다른 주체가 된다면, 한 층 더 향상된 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깊이 있는 자료해석과 비평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생애사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생애사연구는 자료수집부터 해석, 그리고 성찰까지 연구자와 참여자가 협동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된다(Vital, 2009: 75). 만약 참여자가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만큼 참여자의 참여가 연구과정에 명확하고 적극적인 만큼 ‘참여적 타당도’는 높은 것이다. 반면, 참여자가 연구과정에서 반응자로 취급될 만큼 참여수준이 낮다면 ‘참여적 타당도’는 낮은 것이다.

생애사연구에서 ‘참여적 타당도’는 위와 같이 참여자의 참여수준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단순하지 않다. 생애사연구의 참여적 성격의 딜레마는 참여자는 이전까지 감추어졌던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위상을 부여받으나, 연구자는 참여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매개의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Munro(1998)는 생애사연구에서 연구자가 바라는 수준까지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딜레마를 지적하였다(Goodson & Sikes, 2001: 102-103). 그렇다고 ‘참여적 타당도’ 개념이 생애사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생애사연구의 참여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여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생애사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구술면담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체로 담담하게 구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그 진정성 수준에 따라 생애사연구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Sikes, 2010: 13).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참여자와 협동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참여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는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굳건한가?’의 질문으로 환원된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생애사연구 결과의 진정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의 가치가 연구자와 독자에 의해 수용, 인정, 부각될 때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고양되는 것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생애사연구의 타당성은 연구과정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정체성 및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변형적 타당도(Reformative Valid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애사연구의 타당성은 ‘참여적 타당도’와 연구의 진정성, ‘변형적 타당도’ 등 여러 타당도 개념을 중심으로 규명할 수 있다.

#### 4. 생애사연구에서 글쓰기의 기법

생애사연구의 최종 산물은 수집한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표현한 글이다. 생애사연구에서 글쓰기는 구술자료의 전사록, 전사록을 해석한 노트, 그리고 독자에게 생애사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글쓰기는 생애사연구 과정의 단계에 조응한다. 먼저, 구술면담에서 오디오레코딩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어 전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전사록은 가능한 오디오레코딩한 자료를 자연스럽게 글로 옮겨 적은 결과로, 오디오레코딩한 날짜 순서로 작성하고, 참여자의 감정의 변화 등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전사록에 기술된 구술자료를 추상적 범주에 따라 읽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사록에 기술한 내용을 분류하고 연구의도 및 주제와 연관된 문단을 범주에 맞추어 배열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연구노트에 배열된 문단에 대한 해석 결과를 각 문단의 옆에 비어 있는 공간에 적는다. 마지막으로 연도노트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생애사연구의 결과를 표현한 글을 써야 한다.

생애사연구의 결과를 표현한 글은 종류는 화자의 시점과 글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통상적인 질적 연구는 연구자를 참여자와 거리를 일정하게 두는 관찰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화자의 시점을 보통 3인칭으로 설정한다. 반면, 생애사연구는 전기적, 혹은 자서전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화자의 시점을 3인칭보다 1인칭, ‘나’의 시점으로 쓰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생애사연구의 글쓰기가 무조건 1인칭을 추종하거나 3인칭 시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생애사연구는 필요에 따라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기도 한다. 또한, 생애사연구의 글쓰기는 연대기적으로 글쓰기, 중요한 사건이나 일화 중심으로 글쓰기, 참여자와 협동적 글쓰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대기적으로 글쓰기는 마치 연대기를 쓰듯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참여자의 생애사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참여자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요한 사건이나 일화 중심으로 글쓰기는 연대기적 글쓰기와 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참여자의 생애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나 일화를 선정하여 기술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이것은 연구주제와 관련한 사건과 일화를 부각하여 독자가 쉽게 연구주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와 협동적 글쓰기는 생애사연구의 참여적 성격을 극대화한 글쓰기 방식이다. 이것은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글을 쓰는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참여

자의 글을 제시하는 방식, 글을 2단편집하여 한쪽에 기술한 연구자의 글 반대쪽에 참여자의 글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 참여자의 글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생애사연구의 글쓰기는 화자의 시점과 글쓰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야기 체로 기술하면서 독자에게 생애사연구의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는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생애사연구의 결과를 독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생애사연구 글쓰기의 관건이다.

#### IV. 나오며

< 참고 문헌 >

- 김영찬·허창수(2004).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49-81.
- 유철인(1990).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도연구*, 7, 105-117.
- \_\_\_\_\_(1990). “생애사와 신세타령”. *한국문화인류학*, 22(1), 301-308.
- \_\_\_\_\_(1998). “생애사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Alexander, B.(2005). Performance Ethnography. N. Denzin & Y.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ird edition, Sage, pp.411-441.
- Assmann, A.(1998). *Erinnerungsräume*. 변학수·채연숙 역(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그린비.
- Atkinson, R.(1995). *The Gift of Stories: practice and spiritual application of autobiography, life stories, and personal mythmaking*. Bergin & Garvey.
- \_\_\_\_\_.(1998). *Life Story Interview*. Sage.
- Bogdan, R & Biklen, S. K.(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신옥순 역(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 연구. 서울:교육과학사.
- Bruner, J.(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vard University.
- \_\_\_\_\_.(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 Casey, K.(1992). Why do progressive women activists leave teaching?: Theory, methodology and politics in life-history research. I. F. Goodson (ed.), *Studying Teachers' Lives*. Routledge, pp.187-208.
- Caughey, J. L.(2006). *Negotiating Cultures & Identities: Life History Issues, Methods, and Reading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Creswell, J.(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 조홍식 외 3인 역(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학지사.
- Cole, A. L & Knowles, J. G.(2001).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Rowman & Littlefield.
- Deleuze, G.(1969). *Logique Du Sens*. Minit. 이정우 역(2007). 의미의 논리. 서울:한길.
- Denzin, N & Lincoln, Y.(2003).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N. Denzin & Y.

-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second edition, Sage, pp.1-45.
- \_\_\_\_\_.(2005).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N. Denzin & Y.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ird edition, Sage, pp.1-32.
- Dollard, J.(1935). *Criteria for the Life History: with analyses of six notable documents*. Yale University.
- Eisenhart M.(2001). Changing Conceptions of Culture and Ethnographic Methodology: Recent Thematic Shif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Teaching. V. Richard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fourth edition, AERA, pp.209-225.
- Ellis, C & Bochner, A. P.(2003).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Reflexivity: Researcher as Subject. N. Denzin & Y.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second edition, Sage, pp.199-258.
- Freeman, M.(2007). Autobiographical Understanding and Narrative Inquiry. J. D.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Sage, pp.120-145.
- Goodson, I. F.(1988). *The Making of Curriculum: Collected Essays*. second edition, The Falmer.
- \_\_\_\_\_.(1992). Studying Teachers' Lives: an emergent field of inquiry. I. F. Goodson (ed.), *Studying Teachers' Lives*. Routledge, pp.1-17.
- Goodson, I. F & Sikes, P.(2001). *Life History Research in Educational Settings: Learning from Lives*. Open University.
- Haggerson, N.(1998). *Expanding Curriculum Research and Understanding: A Mytho-Poetic Perspective*. Peter Lang.
- Harnett, P.(2010). Life Story and Narrative Research Revisited. A. Bathmaker & P. Harnett (eds.), *Exploring Learning, Identity and Power through Life History and Narrative Research*. Routledge, pp.159-170.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Chicago University. 노양진·나익주 역 (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서광사.
- Langness, L. L & Frank, G.(1991). *Liv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Biography*. chandler & sharp.
- Lather, P.(1986). Issues of Validity in Openly Ideological Research: Between a Rock and a Soft Place. *Interchange*. 17(4), Y. Lincoln & N. Denzin (eds.), (2003). *Turning Points in Qualitative Research: Tying Knots in a Handkerchief*. Rowman & Littlefield, pp.185-215.
- \_\_\_\_\_.(1989). Ideology and Methodological Attitude. W. F. Pinar (ed.), (1999).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Twenty Years of JCT*. Peter Lang, pp.246-255.

- Lincoln, Y & Guba, E.(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_\_\_\_\_.(1989). Ethics: The Failure of Positivist Scienc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2(3), Y. Lincoln & N. Denzin (eds.), (2003). *Turning Points in Qualitative Research: Tying Knots in a Handkerchief*. Rowman & Littlefield, pp.219-237.
- Jackson, P.(1995). On the Place of Narrative in Teaching. H. McEwan & K. Egan (eds.), *Narrative In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Teachers College, pp.3-23.
- Measor, L & Sikes, P.(1992). Visiting Lives: Ethics and methodology in life history. I. F. Goodson (ed.), *Studying Teachers' Lives*. Routledge, pp.209-233.
- Merrill, B & West, L.(2009). *Using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Research*. Sage.
- Miles, M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second edition, Thousand Oaks.
- Mink, L.(2001). Narrative Form as a Cognitive Instrument. G. Roberts (ed.), *The History and Narrative Reader*. Routledge.
- Munro, P.(1998). *Subject to Fiction: Women Teachers' Life History Narrativ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Resistance*. Open University.
- Parke, G. N.(1996). *Biography: Writing Lives*. Routledge.
- Pillay, M.(2009). Researchers Engaging their Privileg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De-Liberations. Dhunpath, R & Samuel, M (eds.), *Life History Research: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representation*, Sense, pp.39-65.
- Richardson, L.(2003). Writing: A Method of Inquiry. N. Denzin & Y.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second edition, Sage, pp.499-541.
- Roman, L. G & Apple, M. W.(1990). Is Naturalism a Move Away from Positivism?: Materialist and Feminist Approaches to Subjectivity in Ethnographic Research. E. Eisner & A. Peshkin (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 The Continuing Debate*. Teachers College Press, pp.38-73.
- Rosaldo, R.(1989). *Culture and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eacon. 권숙인 역(2000). 문화와 진리: 사회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서울:아카넷.
- Ong, W. J.(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Routledge. 이기우·임명진 역(2006).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문예.
- Samuel, M.(2009). On Becoming a Teacher. Dhunpath, R & Samuel, M (eds.), *Life History Research: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representation*, Sense, pp.3-17.
- Saukko, P.(2005). Methodologies for Cultural Studies. N. Denzin & Y.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ird edition, Sage, pp.343-356.

- Seale, C.(1999). Quality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5(4), Y. Lincoln & N. Denzin (eds.), (2003). *Turning Points in Qualitative Research: Tying Knots in a Handkerchief*. Rowman & Littlefield, pp.169-184.
- Sikes, P.(2010). The Ethics of Writing Life Histories and Narratives in Educational Research. A. Bathmaker & P. Harnett (eds.), *Exploring Learning, Identity and Power through Life History and Narrative Research*. Routledge, pp.11-24.
- Smith, P.(2001).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한국문화사회학회 역(2008).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서울:이학사.
- Tyler, S.(1986). Postmodern Ethnography: From Document of the Occult to Occult Document. J. Clifford & G. E. Marcus (eds.),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California University, pp.122-140.
- Vithal, R.(2009). A Quest for Democratic Participatory Validity in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 Dhunpath, R & Samuel, M (eds.), *Life History Research: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representation*, Sense, pp.67-81.
- Wolcott, H.(2001). *Writing up Qualitative Research*. Sage.
- Zeller, N.(1995). Narrative Rationality in Educational Research. H. McEwan & K. Egan (eds.), *Narrative In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Teachers Colleg